

졸업생 창업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주)바이오에프디엔씨, 발전기금 1억 기부

- 생명과학부卒 정대현·모상현 공동대표, "후배들 꿈 이루는 데 써달라"
- 졸업 후 2005년 바이오 벤처기업 창업...올해 2월 코스닥 상장 성공



▲ 졸업생 창업기업 (주)바이오에프디엔씨가 후배들을 위해 5월 19일(목) 지스트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현·모상현 바이오에프디엔씨 공동대표, 김기선 지스트 총장, 고정주 발전재단 이사장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창업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연구하는 기술의 개발 절차나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며 수업을 듣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큼니다”(정대현 대표)

대학원 시절 품은 창업의 꿈을 코스닥(KOSDAQ) 시장 상장으로 꽃피운 뒤 후배들을 위해 거액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부한 창업가가 있다.

2004년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듬해 벤처기업을 창업한 **정대현(51) 동문과**, 2003년 석사학위를 받은 **모상현(48) 동문**. 이들이 후배들을 위해 5월 19일(목) **지스트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두 사람이 창업한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 (주)바이오에프디엔씨 (BIO-FD&C)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지스트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것은 (주)바이오에프디엔씨가 최초이다.

창업 17년 만에 (주)바이오에프디엔씨를 코스닥에 상장시킨 두 사람은 **대학원 시절부터 창업에 뜻을 두고 학업에 임했다**. 이들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탄탄한 연구 경험이 창업 후 바이오 신소재 및 플랫폼 기술을 실용적 관점에서 연구·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현 대표는 "자신이 연구한 기술과 그로 인한 성과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일군 기업을 믿고 열정을 쏟고 있는 구성원들의 행복과 복지로 이어진다는 점이 창업의 가장 큰 보람이자 매력"이라고 말했다.

(주)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주 설계 및 식물세포 배양·생산 기술을 상용화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창업 이후 바이오 소재와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올해 2월 21일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한 이후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 및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등 식물세포 분야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본사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물세포 연구소와 광주전남지점이 위치한 전남 화순군에 제1·2공장과 함께 의약나노소재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창업 이래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100여 건의 국내외 특허 및 60여 건의 국제논문들을 보유하고 있다.



▲ (주)바이오에프디엔씨(BIO-FD&C) 전남 화순 사업장의 제1공장과 제2공장

또한 두 대표 외에도 지스트를 졸업한 여러 동문들이 연구원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스트 생명과학부와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모교와 지속적인 유대·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정대현 대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계와의 협동 연구에 힘써온 모교에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창업 확대로의 선순환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열심히 연구하는 후배들의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상현 대표도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주)바이오에프디엔씨는 이번 기부를 비롯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나가며 ESG 경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음

발전기금 기탁식은 19일(목) 오후 4시 지스트 오룡관에서 김기선 총장, 정대현·모상현 공동대표 등 지스트와 (주)바이오에프디엔씨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탁식 이후 '정대현·모상현 강의실' 제막식이 이어졌다.



▲ 정대현·모상현 강의실 제막식 (왼쪽부터) 정대현·모상현 바이오에프디엔씨 공동대표 김기선 총장은 "졸업생 창업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두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두 창업가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본받아 지스트 학생들이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